

다른 그림 찾기

다음 그림 중 서로 다른 부분 4군데를 찾아보세요. 정답은 다음 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운영이 중단됐던 직원라운지가 5월 23일 다시 문을 열었다. 동관 지하 1층에 위치한 직원라운지는 넓은 휴게 공간과 함께 PC 6대와 프린터 등을 갖추고 있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사진은 직원라운지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직원들 모습.

함께 만드는 뉴스 매거진

이름: _____ 소속: _____
전화번호: _____



독자 여러분의 참여가 더욱 알찬 뉴스매거진의 밑바탕이 됩니다.

- 소개하고 싶은 직원
- 특별한 취미를 가진 직원
- 자랑하고 싶은 반려동물
- 환자와의 감동적인 사연
- 소개하고 싶은 영화
- 우리 부서 소식



가장 좋았던 코너는 무엇인가요? 뉴스매거진에 바라는 점은 무엇인가요?

소중한 모임을 최고의 자리로 만드는
중식당 '남경'

엄선된 고급 재료와 특급호텔 출신 조리장의
장인정신이 깃든 명품 요리의 세계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활전복마초면



13,000원

우삼겹찜빵



10,000원

위치 : 신관 지하 1층
 영업 시간 : 오전 10시 30분 ~ 오후 8시
 ※ 매주 토요일 휴무
 추천 메뉴 : 어항가지(小 18,000원),
 돼지고기탕수육(小 21,000원),
 삼선쟁반자장(2인 16,000원)
 포장 세트 : 가정에서 호텔급 중식요리를 즐길 수 있는
 실속형 포장세트 8종 판매 중!
 ※ 메뉴 및 가격 아산넷 게시물 참조
 신메뉴 : 활전복마초면(13,000원)
 "시원한 육수에 산마와 활전복,
 수박이 들어간 이색 면요리"
 우삼겹찜빵(10,000원)
 "고기양은 늘어나고 국물은 더욱 담백해진 고기찜빵"
 문의 : 02-3010-6381
 ※ 외래식당가 포장 판매, 직원 10% 할인(사원증 또는 사번 제시 후
 이용 가능, 별도 공지 시까지 한시적 적용)

독자를 위한 선물



당첨자 명단

- | | |
|---|---|
| 스카이라운지 에메랄드
코스 식사권(160,000원)
강혜원(암병원간호1팀) | 아로마틱 핸드 워시
(50,000원 상당)
정창영(방사선종양팀)
최지유(암병원간호1팀) |
| 스카이라운지이용권(70,000원)
김은경(외래간호팀 외래3 유닛) | 달마이어 이용권(10,000원)
강보선(교육수련팀)
김민영(수술간호팀 J로젯 유닛) |
| 원내 식당 이용권(30,000원)
김승연(암병원간호1팀) | 김예슬(약제팀) |
| 김정진(수술간호팀) | 박수진(수술간호팀) |
| 박윤정(암병원간호1팀) | 최유진(암병원간호2팀) |
| 장일영(시설팀) | |

좋은 의견을 담아 독자엽서를 보내주신 분들에게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제출 방법 동·서·신관 직원식당 내 배포함
 마감 2022년 6월 15일(수)
 발표 제680호(2022년 7월 1일 발간)



뉴스매거진 매월 1일 · 15일 발행

서울아산병원

VOL.678 2022. 6. 1



“고객들에게 좋은 기억 남을 수 있도록” “언제나 환자 입장에서 생각하고 배려해주셔서 감사했고 반복적인 질문에도 늘 친절하게 설명해주려는 모습에 감동을 느꼈습니다.” 암병원간호2팀 강한별 주임에게 올해 초 전달된 칭찬카드 내용이다. 5월 30일 진행된 고객칭찬 우수직원 시상식에서 강한별 주임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강 주임은 “원칙을 지키며 간호해온 노력이 환자와 보호자에게 좋은 기억으로 남은 것 같다. 앞으로도 동료들과 협업하며 환자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지난해까지는 코로나19로 인해 현장 시상식을 하지 않았지만 올해는 박승일 병원장을 비롯한 경영진이 현장 부서를 찾아 수상자를 시상하고 축하했다. 사진은 81병동에서 진행된 시상식에서 참석자들이 강한별 주임의 수상을 축하하고 있는 모습. (관련기사 4면)



서울아산병원 뉴스로
병원 소식을 한눈에

- 02 NEWS 더 나은 의료를 위한 도전 '아산미래의학심포지엄'
- 14 의사가 만난 의사 "결국 환자의 옆일 수밖에 없어요"
- 12 AMC 리얼스토리 2021 나의 성장일지
- 17 마음건강노트 MBTI, 나와 남을 이해할 도구

더 나은 의료를 위한 도전 ‘아산미래의학심포지엄’ 김재중 조직위원장 “넥스트 노멀 시대로의 도약 준비할 것”



6월 17일 동관 대강당에서 열리는 아산미래의학심포지엄은 온라인으로 생중계될 예정이다.

아산미래의학심포지엄(Asan Innovative Medical Symposium 2022)이 6월 17일 온라인으로 열린다. 아산-하버드 국제심포지엄, 아산-임페리얼 국제심포지엄, 아산국제의학심포지엄 등을 통해 글로벌 의료 정보 교류에 앞장서온 우리 병원은 미래 의료의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며 세계적인 병원으로 도약하기 위해 올해부터 아산미래의학심포지엄을 개최한다.

민간병원 최초로 감염관리센터(CIC)를 여는 등 감염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우리 병원은 ‘코로나19 이후, 미래 의학을 조망하다’라는 주제로 이번 심포지엄을 준비했다. 팬데믹으로 인해 변화된 우리 삶을 조망하고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의학 기술의 새로운 융합으로 가속화되고 있는 미래 의학기술의 발전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조연설은 김명자 서울국제포럼 회장(아산재단 이사)과 바니 그레이엄 전 미국 국립보건원 백신연구센터 부원장이 맡는다. 김명자 회장은 ‘팬데믹과 문명’, 바니 그레이엄 전 미국 국립보건원 백신연구센터 부원장은 ‘빠른 코로나19 백신 개발과 백신학의 미래’를 주제로 코로나19를 둘러싼 현재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할 예정이다.

아산미래의학심포지엄의 조직위원장을 맡은 김재중 교육부원장은 “아산미래의학심포지엄은 일상의 회복을 넘어 또 다른 팬데믹에 대비하고 새로운 미래 의학의 방향을 제시하면서 넥스트 노멀 시대로의 도약을 준비한다는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심포지엄은 ▲Life : 변화된 우리 삶 ▲Healthcare : 더 나은 의료를 위한 도전 ▲In AMC : 미래 의료 혁신의 여정 등 3개의 세션으로 구성된다. 우리 병원에서는 김종재 아산생명과학연구원장, 김태원 암병원장, 김성한 감염관리실장, 감염내과 김양수 교수, 심장내과 김영학 교수, 신경과 강동화 교수, 의공학연구소 최재순 교수 등이 나서 ▲또 다른 팬데믹에 대한 대비 ▲의료현장의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사람중심 디지털 치료 등을 주제로 강의와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승일 병원장은 “깊이 있는 정보와 새로운 통찰력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과 인류의 건강한 삶을 함께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이번 심포지엄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사전등록 및 참여는 아산미래의학심포지엄 홈페이지(aims2022.kr)에서 가능하다.

“심혈관질환 치료시 신장기능 관리해야”



박승정 석좌교수 박덕우 교수 김태오 조교수

관상동맥질환 치료를 받은 환자들의 사망, 심근경색, 뇌졸중 발생률을 신부전 정도에 따라 비교한 결과, 중등도 이상 신부전이 있는 환자의 심혈관사건 발생률이 정상인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심장내과 박승정 석좌교수, 박덕우 교수, 김태오 조교수팀이 2003년부터 2018년까지 다혈관 심혈관질환으로 우리 병원에서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시술을 받은 환자 6,466명과 관상동맥 우회수술을 받은 3,888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신장이 1분간 걸러낼 수 있는 혈액량을 나타내는 신장 기능 지표인 ‘계산된 사구체 여과율(eGFR)’에 따라 ▲정상군(90ml/min/1.73m² 이상) ▲경증 신부전군(60~89ml/min/1.73m²) ▲중등도 신부전군(30~59ml/min/1.73m²)으로 분류했다. 또 연령과 당뇨병, 고혈압 등의 기저질환 빈도, 관

상동맥질환의 중증도에 따른 위험도를 보정한 후 사망, 심근경색, 뇌졸중 중 한 가지 이상의 심혈관사건이 발생할 확률을 분석했다. 그 결과 정상군과 경증 신부전군을 비교한 결과에서 정상군은 18%, 경증 신부전군은 19.6%로 나타나 큰 차이가 없었다. 반면 정상군과 중등도 신부전군을 비교한 결과에서는 각각 25.4%와 33.6%로 나타나 8.2%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또 신부전 정도에 따른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시술과 관상동맥 우회수술의 치료 성적을 비교했더니 정상과 경증, 중등도 신부전 모두에서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시술과 관상동맥 우회수술 성적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덕우 교수는 “주요 심혈관사건의 발생률이 유의하게 증가하는 시점이 중등도 이상의 신부전임을 감안할 때 심혈관질환 치료 시 신장 기능이 떨어지지 않도록 꾸준히 관리해 경증 혹은 정상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심장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미국심장학회지」 최신호에 게재됐다.

※ 계산된 사구체 여과율(eGFR) : 혈장의 크레아티닌 수치를 이용해 신장 기능을 계산한 것으로 실제 신장 기능을 반영할 수 있도록 나이, 성별 요인을 추가로 보정하여 신장 기능을 추정하는 방법

온라인 국제 코성형 심포지엄 74개국 1,100명 참가



이비인후과 장용주 교수(왼쪽 첫 번째)가 아산 코성형 심포지엄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제18회 아산 코성형 심포지엄이 5월 14일 온라인으로 개최됐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74개국 의료진 1,100명이 참가해 코성형 관련 최신지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연자로는 이비인후과 장용주 교수를 비롯해 캐나다 토론토의대 안드레스 갠투스 교수, 미국 예일의대 데렉 스테인버거 교수, 미국 메이요 클리닉 그랜트 해밀턴 교수, 이란 테헤란의대 아이르 사즈가르 교수 등 국내·외 석학 26명이 나서 ▲아시아인 코성형의 필수 고려사항 ▲수축된 코를 위한 늑연골의 지지 ▲코성형 후 코기형의 골격 재건 등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조기 위암, 림프절 전이 위험 미리 계산해 위 절제 줄여



안지용 교수 이인섭 부교수 노진희 진료전임강사

조기 위암은 비교적 간편한 내시경 시술로 치료가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림프절 전이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내시경 시술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수술로 위를 절제한다. 실제 림프절 전이 여부는 수술 후에 알 수 있는데 수술 전 예측이 가능하다는 연구 결과가 최근 발표됐다.

소화기내과 안지용 교수·노진희 진료전임강사, 위장관외과 이인섭 부교수팀은 2001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위 상부에 생긴 조기 위암으로 위 전절제술을 받은 1,025명의 환자를 분석해 종양 크기 및 깊이, 림프절로 연결되는 림프혈관 및 신

경 침범 여부에 따라 조기 위암 림프절 전이 예측 척도를 만들었다. 종양 크기는 2cm를 기준으로 구분했으며 깊이는 점막층이나 점막하층 상부까지 암이 침범했는지 혹은 더 깊은지에 따라 구분해 조기 위암을 총 16가지의 경우의 수로 나눴다. 각 경우의 수마다 림프절 전이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각기 다르게 예측됐다. 예를 들어 종양 크기가 1cm 이하이고 점막하층 상부까지 침범했으며 림프혈관 및 주변 신경 침범이 없다면 림프절 전이 가능성은 1.3%였다. 하지만 종양 크기가 2cm 초과이고 점막하층 하부까지 침범했으며 림프혈관 및 주변 신경 침범이 있으면 림프절 전이 가능성은 약 75%였다. 연구팀이 데이터 검정을 위해 조기 위암 림프절 전이 예측 척도의 유효성을 통계적으로 평가한 결과 83%의 정확도를 보였다. 암 전이 가능성과 환자의 삶의 질을 복합적으로 따져 내시경 시술을 먼저 시도하거나 위 절제술 대신 암이 생긴 위의 일부분만 절제하는 위 보존 수술로 조기 위암을 치료하는 경우가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연구 결과는 「대한위암학회지」에 최근 게재됐다.

고객·동료칭찬 우수직원 시상



동료칭찬 우수상을 받은 내과 곽현석 레지던트·영상의학과 조찬양 레지던트(왼쪽 두 번째, 세 번째)가 영상의학과 의국에서 동료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행했다. 고객칭찬 최우수상은 암병원간호2팀 강한별 주임이 받았고, 고객칭찬 우수상은 외과간호1팀 강혜진 사원 등 14명이 수상했다. 동료칭찬 우수상은 영상의학과 조찬양 레지던트 등 4명이 받았다. 최우수상 수상자는 30만 원, 우수상 수상자는 20만 원의 상금을 받았고, 상장과 함께 꽃다발, 케이크 등이 전달됐다.

고객칭찬 최우수상 암병원간호2팀 강한별
고객칭찬 우수상 외과간호1팀 강혜진, 외과간호1팀 고은아, 암병원간호2팀 김지수, 외과간호팀 손주희, 흉부외과 유재석, 특수검사팀 이성호, 혈액내과 이정희, 대장항문외과 이종률, 암병원간호2팀 이지은(81 유닛), 외과간호2팀 이혜빈(NB 유닛), 암병원간호2팀 장보미, 내과간호1팀 정현정, 심장병원간호팀 채진호, 암병원간호1팀 최가은
동료칭찬 우수상 내과 곽현석, 연구지원팀 김서하정, 외과간호2팀 노혜인, 영상의학과 조찬양

올해 1분기 고객·동료칭찬 우수직원 시상식이 5월 30일 진

후복막 통한 내시경 및 로봇 부신절제술 1,000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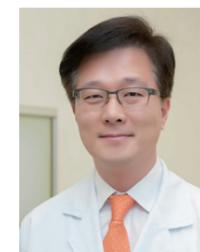
내분비외과 의료진이 후복막을 통한 내시경 및 로봇 부신절제술 1천례 달성을 기념하며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내분비외과 성태연·이유미 부교수, 김원웅·조재원 조교수팀이 부신질환 환자들에게 시행한 후복막(등쪽)을 통한 내시경 및 로봇 부신절제술이 최근 1,000례를 넘어서다.

부신은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분비해 몸의 대사 작용과 면역 반응을 조절하는 기관으로 복부 깊숙이 위치한다. 부신암이나 부신 종양으로 인해 호르몬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분비되는 갈색세포종, 쿠싱증후군 등에 걸리면 고혈압, 비만, 당뇨병 등 대사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어 수술이 필요하다.

후복막 부신절제술은 부신이 신장 바로 위쪽, 간과 위 뒤편 깊숙이 위치한 점을 고려해 부신과 가까운 등쪽을 작게 절개해 내시경 또는 로봇팔을 넣어 부신을 절제하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누워있는 환자의 복부에 1~2cm 구멍을 네다섯 군데 뚫고 복강경 기구를 넣어 부신을 잘라내는 복강경 부신절제술을 시행했다. 위, 소장, 대장, 간, 췌장 등 다른 장기들을 밀어내 고정된 다음 부신에 접근해야 해서 장기 회복을 기다리느라 이틀가량 금식을 해야했다. 하지만 후복막 부신절제술은 주변 장기를 건드리지 않아 금식이 필요 없고 합병증이 적다. 입원 기간도 최소화돼 수술 후 2일 전후로 퇴원할 수 있다. 특히 로봇 수술을 도입한 이후 절개 부위가 한두 곳으로 줄어들면서 환자들의 수술 후 통증이 감소하고 회복 속도가 크게 향상됐다. 우리 병원은 지금까지 로봇을 이용해 300례 이상의 후복막 부신절제술을 시행했다. 2018년에는 다빈치 로봇을 이용해 절개 부위를 2곳으로 줄였고, 2021년부터는 다빈치 SP 시스템을 기반으로 절개를 단 한 곳만 진행하는 단일공 로봇 부신절제술을 진행하고 있다. 다만 부신암이 진행된 경우 환자의 안전과 질환의 특성을 고려해 개복 수술을 시행하고 있다.

국산 의료기기 평가 지원 국책과제 수행



김도훈 교수

소화기내과 김도훈 교수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국산의료기기 신제품 사용자 평가 지원사업' 국책과제를 수주해 국산 의료기기 활성화에 나선다. 국산의료기기 신제품 사용자 평가 지원사업은 국산 의료기기를 사용한 의료진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품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책사업이다. 수행 과제는 2022년부터 2년 동안 2억 원을 지원받아 국내 파인메딕스사의 내시경 지혈겸자인 ClearHemograsper를 임상 적용해 유용성을 평가하고 피드백을 제시하는 것이다.

김 교수는 2020~2021년에도 2년간 3억 원을 지원받아 2가지 나이프 팁을 하나로 합친 국산 하이브리드형 내시경 절개도인 H knife의 임상적 유효성, 안전성 평가에 대한 국책과제를 수행하여 우수한 성과를 거둔 바 있다. 당시 과제 결과를 통해 해당 제품의 성능이 개선돼 호평을 받았고 기업 매출로 연계돼 국산의료기기 활성화를 위한 산·학·연·병 컨소시엄의 성공적인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김도훈 교수는 "소화기 내시경 의료기기 시장은 아직까지 외국 제품 비중이 절대적이다. 임상에서 실제로 사용해보고 현실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는 노력 등을 통해 국산 의료기기 제품이 더 많이 쓰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등정

소화기내과·염증성 장질환 센터 의료진 학회서 수상



변정식 교수 예병덕 교수 홍승욱 조교수 김규원 진료전임강사

후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조성 변화 규명'으로 우수연구자상을 받았다. 한편 홍승욱 조교수는 5월 13일부터 3일간 열린 일본소화기내시경학회에서 '작은 직장 신경내분비 종양의 두 가지 내시경 절제 방법의 비교 연구'라는 주제로 우수연구상을 받았다.

성형외과 의료진 학회서 수상



엄진섭 교수 한현호 조교수 한우연 임상강사

성형외과 엄진섭 교수, 한현호 조교수, 한우연 임상강사가 5월 21일 대한성형외과학회 기초의학연구회에서 '아이폰에 부착된 라이다 센서를 이용한 가슴의 3D 스캔 및 길이 측정 어플리케이션 개발'이라는 주제로 W송원재단 연구장려상을 수상했다.

안강민 교수 과학정보통신기술부장관 표창



치과 안강민 교수가 4월 21일 제55회 과학의 날 기념식에서 과학정보통신기술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안 교수는 활발한 학술연구 및 집필 활동을 통해 과학기술 진흥과 국가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 상을 받았다.



서정국 임상강사 윤아란 연구원

소화기내과 변정식 교수와 예병덕 교수가 최근 대한장연구학회에서 논문상을 수상했다. 변 교수는 'T1 대장암에 대한 일차수술과 내시경절제 후 이차수술

사이 장기 재발률 비교'로 학술상, 예 교수는 'TNF 차단제 치료에 실패한 한국인 염증성 장질환 환자에서 베롤리주맙 유도치료의 성적 및 반응 예측인자: 대한장연구학회 전향 다기관 코호트연구'로 다기관연구자상을 받았다. 5월 12일부터 3일간 개최된 대한장연구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는 홍승욱 조교수가 '새로운 대장내시경 부착 장비를 활용한 선종 발견율의 향상'으로 학술상, 김규원 진료전임강사는 '한국인 염증성 장질환 환자에서 베롤리주맙에 대한 임상결정 지원도구 적용'으로 최우수포스터상, 서정국 임상강사는 '크론병 환자군에서 장 절제술 시행 여부에 따른 분변 칼프로텍틴 차이 분석'으로 학술상, 윤아란 연구원은 '궤양성 대장염 환자에서 베롤리주맙 치료

'글로벌 AMC' 국제교류 재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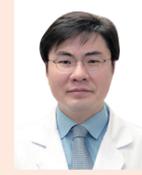


5월 19일 동관 스카이라운지에서 열린 '이드 무바라크' 행사에서 전인호 국제사업실장(가운데)이 중동 의학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면서 한동안 줄었던 우리 병원의 국제교류가 본격적으로 재개되고 있다. 5월 19일에는 인도네시아 보건부 관계자들이 우리 병원을 방문했다. 주한인도네시아 대사관의 공식 견학 요청으로 성사된 이번 방문

에서 인도네시아 보건부 로날두스 무주르 상임고문을 비롯한 방문단 일행은 암병원의 긴급진료실, 암통합진료센터 등을 둘러보고 전인호 국제사업실장과 향후 협력방안에 대하여 논의했다. 같은 날 밤에는 우리 병원에서 장기 연수 중인 중동 의학자들을 위한 행사 '이드 무바라크'가 동관 스카이라운지에서 열렸다. '이드 무바라크'는 라마단이 끝난 것을 함께 기념하는 '이드 알피트르' 축제 기간에 사람들이 서로에게 건네는 인사말이다. 중동 해외 의학자 14명이 저녁 식사를 함께 하고 연수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무슬림의 최대 축제를 기념했다. 한편 5월 20일에는 중국 주요 언론매체인 인민일보, 신화통신, 과거일보 기자단이 우리 병원을 방문해 의료 시스템에 대한 안내를 받았다.

김지완 부교수 우수구연상



김지완 부교수

정형외과 김지완 부교수가 4월 29일부터 이틀간 개최된 제48차 대한골절학회 학술대회에서 우수구연상을 수상했다. 김 부교수는 '인공슬관절 전치환술 후 발생한 슬개골 골절의 수술적 치료 결과-다기관 추적관찰연구'라는 주제로 이 상을 받았다.

김준기 조교수 학술상



김준기 조교수

융합의학과 김준기 조교수가 5월 18일부터 3일간 개최된 한국바이오칩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바이오칩저널 학술상을 받았다. 김 조교수는 '담낭 및 간 손상의 선별적 진단을 위한 나노 바이오마커 기반 표면증강 라만 분광법'이라는 논문으로 이 상을 받았다.

이준엽 조교수·김수진 연구원 최우수연제상



이준엽 조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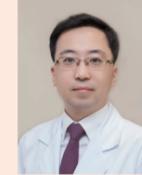


김수진 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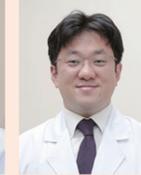
안과 이준엽 조교수, 김수진 연구원이 5월 1일부터 나흘간 미국 덴버에서 열린 2022년 미국 시과학회 학술대회에서 최우수연제상을 받았다. 이 조교수와 김 연구원은 '내외측 혈맥망

막장벽을 구성하는 혈관내피세포의 이질성'이라는 주제의 연구 성과를 발표해 이 상을 받았다.

이재훈 교수·이우형 조교수 학회서 수상



이재훈 교수



이우형 조교수

간담도췌외과 의료진이 4월 28일부터 사흘간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2022 대한내시경복강경외과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 수상했다. 이재훈 교수는 '팽대부 주위종양에서 시행한 로봇 체십이지장 절제술: 단일 술자의 100례 경험 분석'이라는 주제로 최우수구연상을, 이우형 조교수는 '원위부 담관암에서 개복과 최소 침습 체십이지장 절제술의 종양학적 성적의 비교: 성향점수 역학을 가중치를 이용한 분석'이라는 주제로 스폰서십 어워드를 받았다.

김평화 임상강사 젊은의학자상 금상



김평화 임상강사

영상의학과 김평화 임상강사가 5월 12일부터 이틀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대한초음파의학회 제53차 학술대회에서 '소아 갑상선결절에 대한 2021년 한국 갑상선결절 악성 위험도 분류체계의 진단능'이라는 주제의 연구성과를 발표해 젊은의학자상 금상을 수상했다.

상반기 재난대비 종합 모의훈련



5월 25일 오전 아산생명과학연구원 대강당에서 진행된 초기/대피 지원반 소집 훈련에서 시설팀 김근섭 대리(오른쪽)가 대피용품 중 하나인 공기호흡기 사용법에 대해 교육하고 있다.

2022년 상반기 재난대비 종합 모의훈련이 5월 25일 시행됐다. 하반기에 예정된 유관기관과의 합동 훈련 사전 준비 및 교

육을 위해 진행된 이번 훈련에는 직원 130여 명이 참여했다. 오전에 진행된 초기/대피 지원반 소집 훈련에서는 ▲긴급 문자 전송을 통한 소집 ▲재난 시 임무 교육 ▲환자 대피·이송법 훈련 ▲구호용품 사용법 훈련이 진행됐다. 오후에는 121병동에서 화재 발생 상황을 가정해 ▲병동 내 상황 전파 ▲초기 진압 및 환자 대피 훈련 ▲소화기·소화전 사용 실습이 진행됐다. 야간에 진행된 야간/휴일 지원반 소집 훈련에서는 원내 방송을 통한 소집 후 화재 시 대피 지원 임무 교육이 진행됐다. 임흥순 보안관리팀장은 "실제 재난상황이 발생하면 평소 얼마나 대비를 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충분한 임무 교육과 훈련을 통해 환자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4주기 의료기관 인증을 준비하며



임석병 AGS실장

올해 9월 27일부터 30일까지 4일 동안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4주기 의료기관인증 평가가 있을 예정이다. 심신이 지쳐있는 환자들에게 질 높은 의료를 안전하게 제공하는 것은 의료기관의 기본적인 기능이다. 이 수준을 항상 높게 유지하고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모든 직원들의 가장 중요한 책무이다. 의료기관인증 평가는 우리 병원이 제공하고 있는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의 수준을 외부 조사위원의 객관적인 시각으로 확인 받는 시간이다. 동시에 우리가 혹시라도 놓칠 수 있는 부분을 사전에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므로써 서울아산병원의 국제적인 수준을 한층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4주기 인증평가를 시행할 때 조사위원들이 사용하는 평가 기준의 대부분은 이미 AGS(Asan Global Standard)의 기준에 포함되어 있다. 그렇기에 지난 10여 년 동안 자체적으로 AGS 평가를 받아온 대부분의 부서에서는 이번 인증평가도 그리 어렵지 않게 준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이번 4주기에서는 ▲수술장 안전관리 ▲통제 구역의 모니터링 ▲백신 관리 절차 준수 ▲주사용 의약품 취급 시 주의사항 등 새롭게 도입된 평가기준들이 있어 세밀한 부분까지 문제가 없도록 준비하고 있다. 평가 후 인증 결과를 공표하는 방식도 일부 변경됐다. 기존에는 인증 여부만 공개했지만 이제는 필수 조사항목에 대한 기준 충족률을 상/중/하로 표시하게 된다. 우리 병원은 필수 조사항목 모두에서 인증을 넘어 '상' 등급을 획득할 수 있도록 철

저히 대비하고 있다.

AGS실에서 올해 상반기에 진료, 간호, 시설, 행정관리 등 병원의 모든 영역을 대상으로 시행했던 상시평가 결과에서 대부분의 영역은 병원 인증을 위한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다만 아직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았거나 준수가 미진한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특히 구두지시, 필요시 처방, 의약품 관리, 의무기록 작성의 충실도, 화재예방점검 부분 등은 조금 더 개선이 필요하다고 분석됐다. 이러한 결과는 의료기관인증 준비 TF회의를 통해 각 부서에 공유되고 있으며 부서 단위의 개선 활동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번 인증에 대한 준비 과정은 우리 병원의 다소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코로나19 상황은 의료 현장의 위기였던 동시에 우리 병원의 저력을 드러낼 수 있었던 기회이기도 했다. 평상시 AGS 규정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코로나 시국에도 높은 수준의 환자 안전과 의료질을 달성할 수 있었다. 바쁜 현장에서 AGS 평가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협조해준 모든 직원들께 감사드린다. 이번 4주기 의료기관 인증 평가도 우리 병원의 위상을 다시 한번 인정받고 널리 신뢰받는 의료기관임을 공고히 하는 자랑스러운 경험이 될 것이다. 직원 각자가 나의 병원, 나의 자부심, 내가 받는 평가라는 인식을 갖고 인증 준비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병원의 가치를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AGS실에서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

복합 증가에 따른 중환자의 임상양상



중환자·외상외과 안성백 임상강사

중환자·외상외과 안성백 임상강사는 최근 열린 제22차 대한외상중환자외과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 '복합의 증가에 따른 외과중환자실 환자의 임상양상 악화: 한국에서의 다기관 전향적 관찰연구'라는 주제로 연례 과학 업적상을 받았다. 이 연구 결과는 외과중환자실 환자의 치료 과정에서 적극적인 복합압의 측정 및 조절의 중요성을 확인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Q. 연구의 배경은? 복합은 골반, 척추, 배 벽, 횡격막으로 이뤄진 복강 내부의 압력이다. 정상 성인의 경우 0~5mmHg 정도이며 중환자들은 정상 성인보다 높은 5~7mmHg 정도로 측정된다. 복합의 증가를 유발하는 위험요인은 다양한데 특히 배를 수술한 환자가 많은 외과중환자실 환자들은 다른 중환자실 환자보다 위험요인이 많다. 복합이 12mmHg 이상 올라가게 되면 '복강내고압'이라고 하며, 20mmHg 이상 올라가면서 장기부전이 동반되면 '복부구획증후군'이라고 한다. 복합이 증가하게 되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배 안에 있는 간, 신장 등 여러 고형 장기의 장기부전과 소장 및 대장의 괴사가 발생하고 호흡 부전, 순환 부전, 의식 저하 등이 생기며 적절한 시기에 교정되지 않으면 결국 환자가 사망하게 된다. 따라서 중환자실 환자에게 복강내고압이 발생하면 빨리 내과적 치료를 시작하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상태가 악화돼 복부구획증후군이 발생하면 개복을 하여 복합을 줄여주는 수술을 진행한다. 이 연구는 다양한 복합 증가의 원인을 가지고 있는 외과중환자실 환자들에게서 복합의 증가가 환자의 예후에 실제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진행됐다.

Q. 연구에 대해 설명하면? 서울아산병원, 전북대학교병

원,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4개 병원의 외과중환자실이 연구에 참여했다. 연구기간 중 외과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 100명의 복합을 측정했는데 유치 도뇨관을 이용해 하루에 4번 복합을 측정했다. 복합 외에도 환자의 활력징후, 혈액검사 결과, 경장영양 진행정도 등 여러 환자 정보를 수집했다. 수집한 정보와 측정된 복합을 가지고 다양한 비교를 진행한 결과 복합이 증가할수록 그리고 복강내고압에 노출된 기간이 길수록 외과중환자실 환자의 예후가 좋지 않았다. 복합의 증가는 경장영양을 시작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증가시키고 적응도 또한 감소시켰다. 마지막으로 많은 양의 수액이 공급될수록 복합은 더욱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Q. 앞으로의 연구 계획은? 본 연구의 결과 복합의 증가는 외과중환자실 환자의 예후를 뚜렷이 악화시켰다. 따라서 외과중환자실 환자의 치료 과정에서 적극적인 복합의 측정 및 조절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 중환자실 환자의 치료에서는 영양공급에 대한 부분, 특히 경장영양에 대한 부분이 강조되고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복합의 증가는 경장영양의 진행을 저해한다. 다음 연구에서는 보다 정밀한 결과를 얻기 위해 복합과 경장영양의 진행에 대한 부분을 중점으로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 우리 병원이 내놓은 여러 연구성과는 질적으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병원보에서는 '연구노트' 코너를 통해 우리 병원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연구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치질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대장항문외과
김민현 조교수



치질이라고 하면 항문에 생기는 모든 질환 즉 치핵, 치열, 항문농양 및 치루 등을 폭넓게 부르는데 일반적으로 치핵 질환을 일컫는 경우가 흔하다. 항문 주변에는 쿠션 역할을 담당하는 정맥알기(정맥이 촘촘히 덩굴처럼 뭉친 조직)와 결합조직으로 이루어진 조직이 있는데 이것이 치핵 조직이다. 사실 일반인에게는 치핵이라는 문제가 드러났을 때만 인지가 되기 때문에 치핵 조직이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지만 이 치핵 조직은 항문 괄약근을 보호하고 평상시에는 대변이 새지 않도록 항문 사이 공간을 채워주는 고마운 구조물이다.

다만 반복적으로 항문의 압력이 올라가는 일이 발생하면 이 정맥이 압력에 대해 반응하여 점차 확장을 한다. 그래서 점차 부풀어 오르고 덩어리가 지게 되며 심하면 항문관을 방해해서 배변을 방해하거나 지나가는 대변에 혈관이 손상을 받아 출혈을 일으킨다. 그래서 치핵을 호소하는 환자 대부분은 출혈, 통증, 돌출 등으로 방문하게 된다. 통증은 특히 항문의 바깥쪽에 생기는 외치핵일 때 심하게 발생하는데 안쪽에 생기는 내치핵과 달리 항문의 바깥에는 감각세포들이 있어 통각을 느끼기 때문에 생긴다. 피가 안쪽에서 터져 생기는 혈전성 외치핵의 통증은 갑작스럽게 찾아와 초창기 2~3일에 가장 심하고 이후 점차 누그러지는 것이 일반적이라 그 이후에 통증이 지속되면 다른 원인도 생각해 봐야 한다.

치핵 수술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전체 수술 중 건수 기준으로 백내장 다음으로 2위를 차지할 만큼 환자들이 많다. 특히 이 숫자는 현대에 들어서 많이 늘었는데 식단의 변화 및 좌변기의 보급이 주된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우리의 몸은 해부학적으로 좌변기에 앉았을 때보다 재래식 변기처럼 쪼그린 자세, 즉 상체가 허벅지와 35° 정도일 때 직장과 항문 사이에 걸려 있는 치골직장근이 이완하면

서 더 배변에 유리한 자세가 된다. 상대적으로 힘을 덜 주어도 되니 항문에 국소압력이 덜 걸리게 되고 그만큼 치핵 조직도 덜 울혈이 일어나게 된다. 그렇다고 변기를 바꾸기는 어려우니 변기 옆에 발판을 뒤서 발을 올리면 간단하게 해결이 가능하다. 그 외에도 변기에 오래 앉아 있는 것도 악화 요인인데 최근에는 특히 핸드폰이 스마트폰으로 바뀌면서 더 오래 앉아 있게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이러한 자세의 변화 외에도 섬유소가 풍부한 식단으로의 변화, 배변완화제의 처방과 복용, 금주(술은 항문 혈관을 확장시킨다고 알려져 있다), 좌욕 등도 수술 없이 치핵의 악화를 예방하고 보존적으로 치료하는 방법이 된다.

치핵의 수술은 보존적 치료에 실패하거나 처음 진단부터 심했을 때 고려하게 된다. 즉 생겼다고 모든 경우에 대해서 수술하는 것은 아니다. 우선 바깥에 생긴 외치핵 같은 경우 심한 통증 및 출혈 등으로 인한 응급상황이 아니면 좌욕 등 보존적 치료로 해결이 된다. 이는 최근 대장항문학회에서 발표한 'Choosing wisely' 캠페인 중에도 채택이 된 내용으로 혈전성 외치핵 환자에서 응급 수술 상황이 아닌 경우 수술적 치료를 일상적으로 시행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내치핵의 경우에는 증상의 정도에 따라 보통 네 단계(1~4도)로 나뉘는데 2도부터 덩어리가 돌출이 되지만 자연적으로 다시 들어가고 3도부터는 밀어 넣어야 들어가고 4도는 밀어 넣어도 안 들어간다. 수술적 치료는 3도 치핵부터 고려하게 되는데 출혈이 심할 경우에는 상관없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게 된다.

수술은 치핵의 모양과 심한 정도, 의사의 선호하는 수술 방법에 따라 다양한 수술 방법들이 있다. 각 술법에 따른 치료기간, 통증, 합병증 발생률, 재발률이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해 잘 상담해 보고 기대치와 관련해 상의해 봐야 한다.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수술은 치핵절제술로 울혈이 된 치핵조직을 잘라내고 상부의 혈관결찰을 한 후 수술 부위 봉합을 일부(점막부분)만 하는 상태로 치료하는 방법이다. 봉합되지 않은 개방된 부위는 저절로 살이 차오를 때까지 좌욕하면서 관리하면 보통 한두 달 안쪽으로 상처가 낫는다. 그 외에도 PPH라는 원형 자동문합기를 이용하여 수술하는 방법이 있는데 둘째로 심한 치핵 울혈이 있을 때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그 외에도 초기 치핵에 대해서 사용해볼 수 있는 다양한 시술들이 있는데 간단하게 시술로 시행될 수 있는 만큼 그 적응증이나 재발률에 대해서는 잘 상담을 받아 봐야 한다.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치핵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항문외과를 방문하여 전문적인 상담을 받으면 된다.

치핵의 유병률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인류의 역사와 같이 한 질환이고 현재도 매우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진료를 보다 보면 말 못할 질환이라고 부끄러워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는데 혼자만의 고민으로 삭이지 말고 더 심해지기 전에 전문적인 상담을 조기에 받는 것이 좋겠다.

2021 나의 성장일지

전교 120등으로 시작한 고등학교 생활은 3학년 들어 1등으로 올라섰다. 모두의 주목도, 가고 싶은 대학에 점점 가까워지는 것도 즐거웠다. 대입 성적에 반영되는 마지막 기말고사를 앞둔 어느 날, 기숙사 계단을 오르는 데 숨이 찼다. 멈춰 서서 숨을 고르자 “장연호! 공부만 하니까 힘을 못 쓰지~.” 친구들은 길길대며 앞서 올라갔다. 체력 저하에 이어 발열과 오한, 빈혈 증세도 나타났다. 동네 내과에선 대학병원으로 당장 가야 한다고 진단했다. “나중예요. 다음 주가 시험이에요!”

6월 30일 백혈병 환자가 되다

“서울로 가보자.” 전주의 한 대학병원에서 백혈병을 진단받은 뒤 아버지의 차에 올랐다. 내가 꿈꾸던 목적지와는 점점 반대 방향으로 달리는 기분이었다. 억울하고 분해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서울아산병원에서도 결과는 같았다. 실망한 표정을 본 소아청소년중앙혈액과 강성한 교수님은 지금 불안한 건 당연하다며 완치가 가능한 병이니 걱정말라고 했다. 골수이식에 대비해 임호준 교수님으로 담당이 바뀌고 ‘고위험 의약품’이라고 적힌 항암제를 주입했다. 백혈병 환자들의 글을 찾아 읽으며 잔뜩 겁을 먹었는데 막상 항암 치료는 참을 만했다. 첫인상이 차가웠던 임 교수님이 “괜찮지?” 라고 물을 때 부쩍 가까워진 기분이 들었다. 앞으로 잘 헤쳐나갈 용기가 났다. 언제 끝날지 모를 치료 과정을 블로그에 기록하기로 했다.

8월 1일 인생 최고의 생일

눈을 뜨자마자 수분 섭취 배설량 기록표에 귀여운 낙서가 보였다. ‘생일 축하해. 행복한 하루가 되자!’ 간밤에 강혜지, 서유리 선생님이 쓰고 간 메모였다. 점심에는 영양팀에 미리 신청해 준 생일 미역국이 나왔다. 수액을 확인하러 온 신지윤 선생님은 쇼팽백을 건넸다. 예쁜 모자가 담겨있었다. “다른 환자들은 예쁜 모자를 쓰는 데 연호만 위생모를 쓰는 게 마음에 걸려서.” 항암 치료를 받고 듣성 듣성해진 머리를 위생모로 감춰왔다. 병원에선 볼 사람도 없으니 달리 신경 쓰지 않았는데 그게 아니었나 보다. 삭막한 건 병실이 아니라 내 마음이었다. 강성한 교수님과 김지윤 전공의, 완화의료팀의 이은옥 선생님은 깜짝 생일파티를 열어주었다. 그동안 절망스러울 때마다 햇살나무 상담실을 찾곤 했다. 그리고 내내 울었다. 오늘은 그분들이 나를 찾아와 실컷 웃을 수 있었다. 간호사 선생님들과 일요일에도 회진 온 임 교수님의 생일 축하가 연달았다. 이렇게 따뜻한 생일은 처음이었다.

8월 24일 어린이 병동의 기쁨과 슬픔

항암이 끝난 지 2달이 다 되도록 혈액 수치가 오르지 않았다. 의료진과 가족이 화상으로 치료 계획을 상의했다. 혈구 수치가 오르길 기다리다가 다른 감염이 생길 수 있으니 이식을 서두르기로 했다. “완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 교수님의 마지막 인사는 화상 화면이 꺼진 후에도 진한 잔상을 남겼다. 그동안 찔찔했던 마음을 뚫어주는 주문이었다. ‘우리 교수님 정말 멋지다!’ 슬픈 소식도 기다리고 있었다. 예전에 같은 병실을 썼던 혁이가 고통 없는 세상으로 떠난 것이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중환자실에 갔던 혁이의 이름이 다른 병실에 적힌 걸 보고 안심했는데, 혁이는 그



때 마지막 고비를 지나고 있었나 보다. 환자가 되기 전까지는 세상에 이렇게 많은 아픔이 있는 줄 몰랐다. 혁이가 아픔 없는 곳에 잘 도착해 새로운 친구들과 힘차게 뛰놀기를 기도했다.

9월 11일 꿈을 꾸는 긴긴밤

수시 원서를 내보기로 했다. 자기소개서를 쓰고 있으면 간호사 선생님들이 읽고 생각을 다듬어 주었다. 대입과 취업에 성공한 선배님들의 내공이 느껴졌다. “그래도 합격은 힘들 거예요.” 단념 섞인 말투에 서유리 선생님은 ‘앵무새 죽이기’라는 소설책으로 위로했다. 변호사를 꿈꾸는 나에게 맞춤형 책이었다. 편지도 담겨있었다. “수험생 때 서울대에 간 친구가 부러웠어. 시간이 흘러 이제는 그 친구가 간호사 꿈을 이룬 나를 부러워하곤 해. 너의 꿈에 집중해봐. 응원할게!” 늘 좋은 대학만이 목표였는데 내가 꿈꾸는 인생을 그려보며 긴긴밤을 보냈다.

10월 25일 나를 바꾸는 시간

무균실에서 이식 전 항암을 시작했다. 골수 내의 모든 세포를 없애는 과정은 말로 할 수 없이 괴로웠다. 모든 소리가 귓가에 울리고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다. 이불을 뒤집어쓰고 누우니 토가 나왔다. 자세를 바꿔도, 앉아도 계속 토하는 바람에 주변을 온통 더럽혔다. 하루에만 20번의 구토와 6번의 설사가 계속됐다. 입부터 장까지 모든 점막이 헐어 물 한 모금도 삼킬 수 없었다. 더 이상 나올 것이 없자 위액과 담즙을 쏟았다. 엉망진창의 하루하루를 버틴 끝에 11월 1일, 동생으로부터 조혈모세포를 이식 받았다.

12월 3일 시원섭섭한 마침표

“내일 퇴원할 수도 있겠는데?” 혈소판 모세포가 정상임을 확인한 최은석 선생님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다. 간호사분들의 축하 인사가 이어질수록 섭섭한 기분도 들었다. 퇴원을 돕던 강우엽 선생님이 “보고 싶겠지만 그래도 보지 말자!”라며 반년 간의 입원 생활에 마침표를 찍어주었다. 퇴원 후 별다른 숙주 반응이 나타나지 않았다. 치료 내용을 쓰는 날은 점점 줄었다. 오랜만에 펼친 지난 일기에는 힘든 나날을 모두 가릴 만큼 많은 사람들이 반짝였다. 든든한 임호준 교수님, 주치의가 아닌데도 끝까지 챙겨준 강성한 교수님, 엄마 같은 최은석 전문간호사님, 골수 검사를 두려워하는 걸 알고 “연호는 내가 할게”라며 매번 직접 검사해준 고영권 교수님, 내 미래를 응원해준 7~12월의 전공의분들, 천사라는 말이 어울리는 146병동 간호사·조무사분들, 나약해진 마음을 경청으로 치유해준 햇살나무 선생님들까지. 배움과 성장은 학교에만 있는 건 아니었다. 서울아산병원에서 하고 싶은 공부가 달라졌고 돕고 싶은 이들이 생겼다. 일기를 덮으니 예전과는 다른 내가 되어있었다.

● Storytelling Writer 흥누리

※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질병이 삶을 짓누를 때 가까이 희망과 위로의 동행자가 되어준 서울아산병원 'AMC 리얼스토리' 코너는 힘난한 치료 과정을 이겨내고 인생의 두 번째 기회를 만난 사람들과 우리 병원 의료진의 진솔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결국 환자의 옆일 수밖에 없어요”

고윤석 자문임상교수 편

울산의대 학생부학장으로 재임 중인 흉부외과 최세훈 부교수가 1989년 개원부터 현재까지 우리 병원의 지난 30여 년을 이끌어 온 다섯 명의 선배 의사를 만났다. 울산의대 인문의학 강의에서 학생들에게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 인터뷰를 진행한 것. 도전과 열정으로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병원의 성장을 이뤄 낸 선배 의사들의 경험과 노하우가 담긴 인터뷰 내용을 총 5편에 걸쳐 신는다. <편집실>

올해부터 인문 의학을 크게 강조하는 방향으로 울산의대 교육과정을 개편했다. 그중 학생들에게 ‘리더십의 실제’를 보여주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 병원을 만든 리더 몇 분과 대담을 진행했다. 진료하는 의사, 연구하는 의사, 경영하는 의사, 봉사하는 의사. 다양한 분야에서 정점을 경험한 분들과의 대담이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각각 한 시간가량 이어진 대담은 정말 값진 시간이었다. 그분들은 평생 직업에 종사하며 깨달은 바를 담담하게 나누었다. 그 말들을 삶으로 증명했다는 것을 아는 나로서는 담담함 속에서 깊은 울림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울림을 학생뿐 아니라 더 많은 이들, 특히 우리 병원 식구들과 나누고 싶었다. 대담 내용의 일부를 이곳 지면에 옮겨 본다. 대담의 첫 시작은 고윤석 교수님이었다.

대담을 기획할 때부터 여러 교수님들께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많은 신생 병원에서 어떻게 우리 병원은 30여 년의 짧은 시간 안에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병원이 될 수 있었나요? 개원 당시 교수님들은 이런 미래를 예상하셨는지요?
젊고 씩씩했던 전임의 시절인 1989년, 공부를 더 하고 싶은 마음에 당시 서울중앙병원에 지원했습니다. 다들 ‘도전과 열정’을 외치며 열심히 일했죠. 하지만 이렇게나 빠르게 국내·외 의료를 선도하는 병원으로 자리매김할 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정주영 설립자께서 제안하셨던 ‘환자를 위한 좋은 병원’을 한번 만들어보자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대단한 잠재력을 지닌 젊은 교수들이 맘껏 뜻을 펼칠 수 있었고, 후배들이 무언가를 이뤄나갈 때 그것을 격려하는 선배 교수들이 있었죠. 지금 다시 생각해봐도 좋은 분위기였습니다. 신생 병원의 장점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전통이 오래된 학교나 병원이라면 선배 교수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면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그렇지 않았죠. 족적을 따라가고 싶은 좋은 선배, 심포지엄에서의 격의 없는 토론. 재미있고 신났습니다.

교수님께서도 개원 초기부터 중환자의학을 전공하셨고, 의료 윤리 분야에서도 많은 활동을 하셨습니다. 특히 중환자 의학이라면 지금은 기피 분야인데요(웃음), 어떻게 선택하셨는지요?
사실 제가 중환자의학을 시작하게 된 것은 처음부터 제가 작정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초대 호흡기내과 과장이셨던 김원동 교수께서 제게 먼저 권하셨습니다. 당시 미국에서는 호흡기내과 의사가 중환자실을 보는 것이 이미 자리를 잡은 상태였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그때 ‘우리나라 내과계 중환자실의 좋은 표본을 만들자’, 나아가 ‘우리 내과계 중환자실을 의료 수준의 편차가 큰 아시아 의사들을 위한 교육과 교류의 장으로 키워보자’는 목표도 세웠죠. 임채만, 홍상범, 허진원 교수 등 훌륭한 동료 의사들과 함께 해 그 원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중환자 치료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의료 윤리 분야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초대 내과 과장이셨던 홍창기 교수님께서 제게 의료 윤리와 관련한 일을 해보지 않겠냐고 먼저 권하셔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뜻을 정하고 온갖 난관을 뚫고 우뚝 서는 흔한 영웅 서사들과는 다른 과정이네요?



고윤석 교수는 1982년 한양의대 졸업, 한양대병원에서 전공의 과정 수료 후 1989년 우리 병원 개원에 맞춰 전임의로 합류했다. 호흡기내과학과 중환자의학에 매진했으며 2008년 대한중환자의학회 회장을 역임하며 중환자 전문의 과정을 독립시켰다. 한국의료윤리교육학회 창립에 기여했고 2010년 학회장을 역임했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연명의료제도 법제화에 기여했으며 이번 울산의대 교육과정 개편에 인문의학위원회 위원장으로 참여했다. 현재는 자문임상교수로 시니어건강센터 소장을 맡고 있다.

네. 기획은 우연히 외부에서 제공되는 것이었어요. 그것에 성실하게 반응하고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에 나름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좀 다른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의료 현장에서 있는 우리 모두는 육체적, 정신적인 한계 상황을 종종 경험합니다. 중환자실이 그 대표적인 장소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번아웃’ 극복 방법은 무엇인가요?
번아웃-소진-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누구나 한 번 이상 경험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것을 극복하는 힘은 결국 일상 그리고 습관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담당하는 환자가 안 좋아지고 이로 인해 보호자의 원망을 들을 때면 괴롭죠. 스스로 자책하는 마음이 생길 때 더욱 괴롭습니다. 하지만 의료진이 위로를 받고 견뎌낼 힘을 얻는 곳도 결국 환자의 옆일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괴롭고 몸도 피곤할 때, ‘가기 싫다, 하기 싫다’라는 마음이 들기도 전에 일어나서 환자 옆에 가는 것이 바로 습관입니다. 그 과정을 거쳐 환자 옆에 섰을 때 뜻밖의 선물 같이 번아웃을 이겨낼 위로를 받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습관은 금방 생기지 않아요. 내가 하는 일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습관을 만들 수 있습니다. 확신을 가지려면 내 가치관이 무엇인지, 나는 무엇을 바라는지 등을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인문학적 접근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하죠? (웃음)
분명히 그럴 수도 있죠. 저는 여러분 모두가 자신을 한계까지 쭉 밀어붙여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더할 나위 없이 최선을 다했다고 스스로 생각된다면, 설령 뜻한 결과가 아니더라도 기분 좋게 추락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 대목에 정말 동의한다. 할까분하고 아쉬움이 남지 않는, 오히려 다음 단계로 나아갈 기반이 되는 기분 좋은 추락도 있다는 것을.

이 대담의 주제가 리더십입니다. 병원에서 일하는 우리 모두 직역을 막론하고 팔로워로 시작해 리더로 세워지는 과정에 있습니다. 또 누구도 혼자서는 리더가 될 수 없고 팀으로 모여야만 가능합니다. 리더의 자질, 혹은 팀워크의 키워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좋은 말들이 많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리더의 자질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자신이 하는 일에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확신이 없이 어느 파트의 리더가 되는 것은 본인과 팀원 모두에게 좋지 않아요. 자신의 일에 대해 스스로 납득할 수 없다면 더욱 쉽게 번아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신을 바라보는 팀원이 있는데 에너지가 소진되는 것을 경험한다는 것은 리더로서는 매우 괴로운 일입니다. 만약 자신의 일에 확신이 생겼다면 좋은 리더는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야 합니다. 가치와 목표를 팀원들과 공유하고 이들을 꾸준히 설득해야 해요. 확신을 팀원 모두에게 심어주는 것이죠. 팀 내에 충분한 확신을 전파했다면 리더는 같은 확신으로 한 팀이 된 팀원들에게 ‘저 사람도 힘들게 일하는구나’라는 정도의 신뢰를 주는 것만으로도 좋은 팀워크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많은 이야기를 다 옮기기에 지면이 짧아 아쉽다. 탁월한 지식, 지혜, 슬기, 판단력을 갖춘 동료들과 함께 윤리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서울아산병원에서 일할 수 있었던 것이 스스로에게 큰 축복이었다는 말로 대담을 마무리하는 고윤석 교수님의 깊게 반짝이는 눈망울을 글로 표현할 수 없어 또한 아쉽다.

감염관리센터의 시작을 함께하며



응급간호팀 이민주 대리

'응급간호팀'. 이 다섯 글자는 간호사로서 내 삶에 없는 글자인줄로만 알았다. 급박한 상황 속에서 빠른 처치가 진행되고 증상을 치료한 뒤 바로 퇴원과 입원이 이루어지는 응급실에서의 간호보다 좀 더 깊이 있게 질환에 집중할 수 있고 환자, 보호자와 지속적인 라포도 쌓을 수 있는 내과계 간호사가 적성에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신입 간호사 시절 1~3지망을 모두 내과계 간호사로 지원했고 그렇게 중암내과 병동 간호사로 10년의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응급간호팀'의 일원으로 감염관리센터 27병동에서 코로나19 확진 환자들을 간호하고 있다.

2020년 9월 처음으로 코로나19 확진 환자를 간호했을 때만 해도 모두 6개월 안에 코로나 상황이 잠잠해지고 원래 일하던 병동으로 돌아갈 수 있을 줄 알았다. 저 멀리 부지를 착공하고 공사가 시작된 당시 '(Infection·감염)동'의 모습을 보면서 "선생님은 1동 지어지면 가실 거예요?" "저 건물에는 어떤 공간이 생길까요?" "새 건물에서 일하면 좋을까요?"라며 다들 내 일이 아닌 듯 넘겼다. 그 사이 6개월의 시간은 1년이 되었고 2022년의 지금으로 이어졌다. 1동은 감염관리센터(CIC·Center for Infection Control)라는 멋진 이름을 갖게 되었다.

"자, 이제 저와 함께 이삿짐을 꾸립시다! 저 오늘 마음 단단히 먹고 왔어요!" 2022년 2월 9일 나는 다음 날 오픈을 앞둔 감염관리센터의 이동을 위해 환자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이삿짐을 꾸렸다. 환자의 짐들을 구분하고 버릴 것은 버리고 소독 티슈로 하나씩 소독 후 이중 포장을 하는 과정을 반복했다. 그 중 다리 수술을 받자마자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은 할머니가 계셨다. 이미 병동에서부터 들고 오신 짐만 큰 캐리어로 2개. 인계노트에는 '퇴원하실 때 가지고 가신다고 함. 냉장고 음식 절대 버리지 말 것'이라고 적혀 있었다. 옮겨가는 것은 내일인데 왜 벌써 짐을 싸냐고, 다 사용하는 거라고 타박하는 할머니께 "저

오늘 포장이사 하러 왔어요. 집 이사할 때 이사 당일 짐 싸지 않으시죠? 내일 편하게 가실 수 있게 포장이사 해서 깨지지 않게 옮겨 드리려구요"라고 말씀드렸다.

그리고는 냉장고를 열었는데... 공용으로 사용하는 중형 냉장고의 냉장칸이 모두 가득 차 있었다. 오징어젓, 초게젓, 어리굴젓 등 각종 젓갈부터 양념장, 기름, 김치가 종류별로 넣어 있었고 이밖에도 떡, 만두, 과일까지 한 가득이었다. 감염관리센터에서도 외부 음식은 못 드신다고 설명 드려도 한사코 집으로 다시 가져가시겠다는 할머니를 설득하고 반찬통 하나하나를 다 열어서 보여드리며 정리를 했다. "OOO님 짐이 제일 많아요. 저 여기서 이삿짐 1시간 썼어요. 그래도 내일 가시는 곳은 새로 지은 건물이라 여기보다 더 깨끗하고 좋아요. 병원에서 야심 차게 지은 거예요. 아마 우리나라에 이런 시설은 더 없을 거예요? 뉴스에도 신문에도 기사가 엄청 나왔어요. 그 곳을 처음 사용하시는 거예요." 자랑을 늘어놓으며 앞으로의 미래에 관스레 기대가 가득 찼다.

드디어 2월 10일, 이동이 시작되었다. 환자들을 이동형 음압철회어와 음압캐리어로 옮기고 앞과 뒤로 보안관리팀과 의료진이 따라 붙었다. 정해진 이동 동선을 따라 코로나 환자들이 있는 155병동에서 정반대의 위치에 있는 감염관리센터까지 끝에서 끝으로의 이동이었다. 이동 수단 하나에 환자 한 명을 이송해야 했기에 몇 번을 계속 왕복했다. 이동한 환자들은 처음 보는 새로운 시설과 외국 드라마에서만 보았던 1인 격리 시스템에 다들 놀랐다. "역시 서울아산병원이네!"라는 이야기를 들으며 "역시 서울아산병원이니가 할 수 있는 거예요"라고 답해드렸다.

'응급간호팀' 간호사로의 나의 삶과 함께 감염관리센터도 성장할 것이라 믿는다. 누군가를 위한다는 마음 하나로 뭉친 서울아산병원의 우리이기에, 모두가 각자의 소명을 다하고 자리를 지킬 것이다.

※ '어느 간호사의 다이어리'는 환자 곁에서 간호사가 적어 내려간 희망과 극복의 생생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MBTI, 나와 남을 이해할 도구



건강의학과 안명희 임상전임강사

"당신의 MBTI는 무엇인가요?" 어떤 모임에서든 한번은 받게 되는 질문이죠. 단순 재미로 해볼 수 있는 검사가 이제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간략히 소개할 수 있는 하나의 아이템으로 자리 잡은 듯합니다.

MBTI(Myers-Briggs Type Indicator, 마이어스-브릭스 유형 지표)는 카를 구스타프 융(C.G. Jung)의 심리학적 유형론을 토대로 만들어진 자기 보고식 성격 유형 검사입니다. 사람을 외향(E)-내향(I), 감각(S)-직관(N), 사고(T)-감정(F), 판단(J)-인식(P) 네 가지 척도의 관점에서 구분하고 두드러지는 지표의 알파벳을 조합해 16가지 유형으로 분류합니다. MBTI는 내가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 상대는 어떤지 간단히 파악할 수 있게 해 줍니다. 결과가 상당히 재미있게 기술되어 있어 부담 없이 읽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같은 MBTI의 사람을 만나면 동질감을 느끼기도 하고 가족, 친구, 좋아하는 연예인의 MBTI를 알아보며 상대를 짐작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물론 융의 유형론은 분류에서 그치지 않고 자신의 내면세계를 살피는 하나의 도구로 활용함에 그 의미를 둡니다. 융은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편하고 익숙한 심리적 기능이 있다고 했습니다. 반대 기능은 상대적으로 열등하게 무의식 속에 남겨지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회화 과정을 겪으며 어느 정도 심리적 균형을 이루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한쪽 극단에 치우쳐 있는 삶의 태도를 보일 때는 어떤 형태로든 탈이 난다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외향적인 삶의 태도가 두드러져 직업적 성취, 사회활동, 대인관계에 몰입하며 생활하던 50대 남성이 어느 순간 삶의 공허함, 우

울 기분을 느끼며 외래에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의 우울은 비정상적 증상이기보다는 무의식이 의식에게 보내는 메시지로 볼 수도 있습니다. 외향적 삶의 모습만큼 자신의 내면 세계에도 공을 들이며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신호인 것이죠. 또한 사고형의 사람은 이성적, 객관적으로 합당한 판단을 내리는 데 뛰어나지만 반대인 감정 기능에 소홀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취미생활, 예술, 친구 활동 등이 포함됩니다. 유형론은 이렇게 개인의 열등 기능을 인식하고 분화 발달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자기실현을 도울 수 있습니다.

자신이나 타인을 깊이 이해하는 데는 오랜 시간과 에너지가 듭니다. MBTI는 단순하고 간편하게 나와 남을 알고 싶은 욕구가 불러온 유행으로 보입니다. 혈액형 성격, 별자리 운세 등이 자리하던 역할을 이제 MBTI가 대체한 것 같기도 합니다.

가장 대중화된 심리검사이지만 정신건강의학과 임상 현장에서의 활용도는 낮습니다. 지표 자체의 객관성과 효율성이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검사할 때마다 MBTI 유형이 다르게 나온다는 사람이 있는 것은 신뢰도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같은 질문에도 최근 내가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른 답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나를 잘 알아가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MBTI를 사용해볼 수 있겠으나 스스로를 단정 지어 라벨링 하지 않아야 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라고 규정지음으로써 미래의 자신의 생각과 행동까지 예측하거나 결정짓는 'MBTI 과몰입'을 하지 않도록 유의하셨으면 합니다.

※ 안명희 임상전임강사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 2017년 건강의학과에 입사해 스트레스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으며, 직원 심리상담 프로그램인 '마음지기' 담당교수로서 직원들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 병원이라는 특수 환경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다양한 스트레스 상황을 맞습니다. 직원들의 크고 작은 고민과 스트레스를 '마음건강노트' 코너를 통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병리팀

김태욱 **사원입니다**



“ 신뢰도 높은 검사 결과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약성·양성 조직의 병변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현재 병변에 대한 정보를 기술하여 최종 판독에 필요한 조직 단면을 만들어 내는 검사인 육안검사를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조직마다 병변의 형태와 위치가 다르고 최종 판독 및 진단과 직결되는 검사이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의학용어와 해부학적 지식 등이 요구됩니다. 이를 위해 계속 공부하면서 신뢰도 높은 정확한 진단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환자는 지난 크리스마스 때 병원 로비에 설치된 트리 앞에서 혼자 사진을 찍고 있던 한 할머니가 생각납니다. 할머니가 제게 사진 촬영을 부탁하셔서 자연스럽게 얘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조직 절제 수술을 받은 후 퇴원하는 길이었고 조직 검사 결과에 대한 두려움을 내비쳤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제가 조직을 검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요. 반드시 정확한 검사를 통해 적절한 치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고 할머니는 제 손을 잡으며 고맙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도 조직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을 많은 환자들을 위해 어떤 마음가짐으로 조직 검사를 해야하는지에 대한 해답을 주었던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일하면서 힘든 점은 상급종합병원이기 때문에 그만큼 다양한 형태의 조직을 검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선임 선생님들께 조언을 구하고 지속적으로 이론 공부를 하면서 해결해나가고 있습니다. 병변에는 환자가 힘들고 고통스러워 했던 시간이 고스란히 담겨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손에서 이뤄진 검사가 최종 판독을 거쳐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로 이어진다고 생각하면 큰 책임감이 느껴지고, 환자들의 건강한 삶에 조금이나마 보탬을 주고 있다는 사실에 자부심과 감사함을 느낍니다.

앞으로 목표는 현재 맡고 있는 업무뿐만 아니라 병리팀의 전반적인 업무 프로세스를 배우고 이해하면서 신뢰도 높은 검사 결과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또한 새로운 기술과 장비의 도입은 검사 결과의 질을 향상시키기 때문에 이에 발맞추기 위해 계속 공부해 나갈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체력을 키우기 위해 헬스를 꾸준히 할 생각이고 코로나19가 종식되면 가족, 친구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며 좋은 추억을 만들고 싶습니다.

※ ‘AMC 루키’는 각 부서의 신입직원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본인을 알고 싶은 신입직원, 함께 일하고 있는 동료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① **언제나 신뢰할 수 있었다는 확신**

서울아산병원 건강증진센터에서 내시경 검사를 받았습니다. 난생 처음 받은 내시경 검사라서 그런지 속이 많이 불편했습니다. 이틀이 지나도 나아지기는커녕 출근을 못할 정도로 증상이 지속됐습니다. 고민 끝에 건강증진센터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이효선 간호사님은 따뜻한 목소리로 저를 살피주었고 검사를 진행한 교수님에게 확인해 제게 필요한 약을 처방받을 수 있도록 이야기해주고 증상에 대한 대처법을 안내해주었습니다. 그다음 날 아침 일찍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 수화가 너무 이 제 막 출근한 것 같은 분주한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제 상태가 걱정스러웠던 이효선 선생님이 출근하자마자 연락을 해주신 것이었습니다. 다시 불일 없을지도 모를 한 명의 고객을 위해 잊지 않고 확인 연락을 해준 선생님의 따뜻한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 고객들이 이렇게까지 생각해주는 의료진이 있는 병원이라면 언제나 신뢰할 수 있었다는 확신이 생겼습니. 고맙습니!

건강검진 고객들은 다른 검사들에 비해 내시경 검사를 받을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내시경 자체도 긴장되고 진정 상태로 검사받는 것도 걱 정돼 몸도 마음도 예민한 상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고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불편감을 호소하다 끝내 울음을 터뜨렸죠. 불편감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지만 너무 힘들어하던 고객의 목소리가 계속 걱정 돼 다음날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챙겨줘 너무 감동했다며 고마워하던 고객의 목소리가 생생합니다. 고객이 불편감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고 공감했던 점을 좋게 봐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건강증진센터는 고객이 기대하는 친절과 서비스의 기준이 높은 부서입니다. 칭찬카드를 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그 래도 이렇게 칭찬카드를 받으니 행복합니다. 이 기쁨과 즐거움을 고객이 느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열심히 ‘공감’하겠습니다! 건강증진센터 고객 여러분. 궁금하거나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의 파트너로 함께 하겠습니다!



건강운영팀 이효선 과장

② **따뜻하고 즐거운 무균실**

항암의 끝이라는 조혈모세포 이식을 위해 무균실 치료를 받은 환자입니다. 일반 병동에서 치료를 마치고 무균실로 옮겨온 첫날 저녁. 바뀐 치료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쳐있을 때 병실 유리문 너머로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간호사님을 보았습니다. 이전 항암치료 때 병동에서 만난 적 있는 강수현 선생님이었어요. 당시 무균실 생활에 대해 걱정하고 있는 제게 선생님은 “저도 무균실에 들어가요 무균실에 오시면 저와 같이 생활할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며 다독여주었습니다. 그렇게 무균실에서 만난 강수현 선생님은 환자들이 많은 상황에서 저를 기억해주었고, 만날 때마다 제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호탕한 웃음과 함께 농담을 건네는 선생님과 함께 해서 즐겁게 치료를 받을 수 있었어요 무균실을 생각하면 무섭고 차갑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선생님 덕분에 어느 곳보다 따뜻하고 즐거운 곳이 됐어요 감사합니다. ^^

저는 항암 치료와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은 환자들을 간호하고 있습니다. 조혈모세포 이식을 위한 마지막 항암 치료를 마치고 자녀와 통화하며 울던 환자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환자의 목소리에서 마지막 항암 치료까지 잘 마쳤다는 기쁨과 무균실 치료에 대한 걱정을 동시에 느낄 수 있었죠. 환자에게 “저도 무균실에서 근무하고 있고 병동에서 만난 간호사들을 무균실에서도 볼 수 있으니 너무 걱정 마세요”라고 이야기를 건넨 기억이 납니다. 입원해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겠지만 하루만 있어도 힘든 곳이 병원입니다. 2주에서 한 달가량을 격리된 채 지내야 하는 무균실 환자들의 고충은 더욱 크죠. “감옥에 들어온 것 같다”라고 표현한 환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힘들어하기 전에 한 번이라도 먼저 찾아가서 밝게 응대하려고 노력하는데 이 점을 좋게 봐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항암 치료와 조혈모세포 이식에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팬데믹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암과 싸워온 모든 환자들을 응원합니다. 저희 의료진이 늘 함께 할게요!



암병원간호팀 강수현 대리

※ ‘감사우체통’은 고객이 보내온 고마운 마음과 직원들의 이야기를 공유하는 코너입니다. 소개하고 싶은 마음 따뜻한 이야기가 있다면 병원보 편집실로 연락 주십시오.

여름맞이 가전제품 청소하기

아직 아침 저녁으로는 날씨가 선선하지만 한낮에 밖을 걷다 보면 땀이 줄줄 흐른다.

다가오는 여름을 맞이하기 위해 무더위 필수품인 에어컨과 선풍기, 제습기 등 가전제품을 청소해보자. 여름 가전제품은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냉방 성능이 저하되고,

내부에 각종 유해 세균이 번식해 우리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

쾌적한 여름을 보내기 위한 여름맞이 가전제품 청소 방법을 정리했다. <편집실>



선풍기

- 1 선풍기 망을 고정하는 나사를 풀어 망과 날개를 분리한다.
- 2 미지근한 물에 베이킹 소다와 식초 2~3방울을 풀어준다.
- 3 분리한 선풍기 망과 날개를 물에 담가 30분간 때를 불려준다.
- 4 때가 충분히 불어나면 중성세제를 묻힌 수세미로 닦아낸다.
- 5 사이사이에 낀 먼지는 솔이나 칫솔을 써서 제거한다.
- 6 흐르는 물에 깨끗이 헹구주고 물기를 마른 걸레로 닦아낸다.
- 7 물기는 고장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완전히 건조시킨다.

에어컨

- 1 에어컨의 전원을 끄고 플러그를 뽑는다.
- 2 에어컨 본체를 열어 필터를 분리한다.
- 3 청소기와 브러시로 필터에 낀 먼지를 꼼꼼하게 제거한다.
- 4 미지근한 물에 베이킹 소다와 식초 2~3방울을 풀어준다.
- 5 필터를 물에 넣고 30분간 남은 먼지를 불린다.
- 6 수세미에 중성세제를 묻혀 깨끗이 닦아준다.
- 7 세척이 모두 끝난 후에는 그늘에서 말린다.
(햇빛에 노출되면 필터가 변형될 수 있으니 주의)

Tip

- 공기청정 기능이 있는 에어컨은 실내 공기를 측정하는 센서를 알코올을 묻힌 면봉으로 닦아줘야 한다.
- 바람이 나오는 곳에 세척제를 뿌린 후 30분간 송풍 기능을 사용하면 곰팡이균 증식을 막는 데 도움이 된다.
- 에어컨을 켤 때 곰팡이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작동 직후 10분간 환기를 해주어야 한다.
- 실외기 관리도 중요하다. 바람망에 먼지가 많이 쌓이면 팬이 잘 돌아가지 않아 냉방 효율이 떨어진다. 물을 적신 헝겊으로 먼지를 자주 제거해주자.



공기 청정기

- 1 필터의 교체 주기는 보통 6개월~1년이다. 교체 주기에 따라 꼭 필터를 바꿔야 한다.
- 2 세척이 가능한 필터의 경우 에어컨 필터와 동일하게 청소한다.
- 3 외관에 쌓인 먼지는 마른 수건으로 털어주고 물기 있는 수건으로 한 번 더 깨끗이 닦아준다.
- 4 버튼과 센서에 낀 먼지는 면봉을 이용해 제거한다.

제습기

- 1 마른 걸레나 전자기기용 티슈로 외부에 있는 먼지를 제거한다.
- 2 제습기 필터는 세척이 가능한 필터와 불가능한 필터가 있기 때문에 먼저 필터 종류를 확인한다.
- 3 세척 가능한 필터는 에어컨 필터와 동일한 방법으로 세척하고, 세척이 불가능한 필터는 정기적으로 교체해야 한다.
- 4 물통은 베이킹 소다, 물, 주방 세제를 1:1:1 비율로 섞은 세제를 만들어 세척해준다.

Tip

- 제습기는 늘 습기에 노출되어 세균 번식이 쉽기 때문에 적어도 2주에 1번은 꼭 청소가 필요하다.
- 물통은 오랫동안 방치하면 세균과 곰팡이가 번식하기 때문에 찌꺼기 바로 비워야 한다.



※자료 출처 : 네이버 블로그

나무야 나무야

옥잠화

분류 백합과 여러해살이풀
학명 Hosta plantaginea (Lam.) Asch.
원산지 중국



신관 중앙공원 뱃나무 밑에 있는 옥잠화는 초록색의 윤택한 잎과 청아한 하얀 꽃을 가진 식물이다. 조경용 지피 식물로 많은 사랑을 받는 식물 중 하나인데 하얀 꽃이 선녀의 옥비녀를 닮았다고 하여 옥잠화, 옥비녀꽃, 백학선으로 불린다. 중국이 원산지라 우리나라에 언제 들어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옥잠화의 아름다움을 대변하는 신속주의 시가 있다. '아름한 향기가 풀 장막을 뚫으니/얼음 훈 눈 녀에 흰 이슬 적셨나/옥잠의 참 맛을 아시고자 하오면/피기 전에 봉오리를 보시옵소서' 반음지 식물이며 꽃이 밤에 피고 은은한 향이 매우 좋다. 7~8월 석양이 지면 비녀 모양의 꽃봉오리가 부풀어 오르고 가운데서 암술이 나오면서 하얀 꽃이 피어난다. 크기는 10~13cm이고 빠른 것은 오후 6시경에 피고 7~8시경에는 활짝 핀다. 꽃송이는 많이 피지만 종자 결실은 아주 적은 편이어서 씨로 발아하는 것보다 포기 나누기로 많이 심는다. 약용으로 목이 붓고 화상, 뱀에 물렸을 때 달여서 붙이고 치료하는데 쓰였으나 「본초강목습유」라는 책에서는 성질이 서늘하고 약한 독이 있어 식용으로 임산부나 몸이 찬 사람은 사용을 금지했다고 한다. 꽃말은 추억, 조용한 사랑이다.

※ 자료 제공 : 시설팀 함중덕 선임기사

● 옥잠화를 볼 수 있는 장소

※ '나무야 나무야' 코너를 통해 우리 병원 공원을 산책하며 만날 수 있는 나무와 꽃, 풀을 소개합니다.

굿바이 콩글리시

"불편사항은 언제든지 말씀해주세요" "검사 중 불편감이 느껴지면 손을 드세요" 등 진료나 검사 시 불편함이 있을 때 의료진에게 알려달라는 안내를 많이 듣는다. '불편'을 생각하면 우리 머릿속 번역기가 inconvenience를 떠올릴 텐데 이런 상황에선 discomfort가 자연스럽다.

미국 마트에서 계산하려면 점원이 묻는다. "Paper or Plastic?" 페이퍼는 종이봉투인 것 같은데, 플라스틱은 '락앤락' 같은 플라스틱 용기인가? 뭐라 답할지 우물쭈물하는 동안 점원은 얇디얇은 비닐봉지를 꺼내 보인다. 합성수지로 만들어진 것을 영어로 플라스틱이라고 하니 '바이닐', '비닐' 발음 굴려도 소용없다. 영어로 비닐봉지는 그냥 plastic이다.

불편

☹ inconvenience

😊 discomfort

Let's Talk

- A If you feel any discomfort, just let me know anytime.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주세요.
- B Okay, thanks. 네, 고마워요.

비닐봉지

☹ vinyl bag

😊 plastic bag

Let's Talk

- A Hello, would you like paper or plastic? 안녕하세요, 어디에 담아 드릴까요? 종이봉투 아니면 비닐봉지?
- B Paper, please! 종이봉투에 담아 주세요!

● Written by 아카데미운영팀 서영미 글로벌전문강사

※ 우리가 당연하게 사용하는 영어 표현 중에 정작 외국인들은 이해하지 못하거나 오해하는 표현이 많습니다. '굿바이 콩글리시' 코너를 통해 잘못 사용하고 있는 표현을 공유합니다.

독자의 소리

뉴스매거진에 대한 감상, 동료 직원에 대한 칭찬, 신입직원 소개 등 직원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독자엽서를 통해 편집실로 전달됩니다. 좋은 의견을 보내주시는 독자들의 목소리 일부를 소개합니다. 선정된 직원에게는 달마이어 이용권을 드립니다.

암병원간호팀 최지유 주임

최근 들어 부쩍 다른 사람에게 화가 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니 '한 번 더 참았다면 어땠을까'하는 생각에 괜히 멧쩍고 때론 죄책감까지 들곤 했습니다. 그런데 '마음건강노트-분노를 잘 다루기 위한 노력'을 읽으며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특히 분노는 지극히 정상적인 감정이라는 내용이 크게 와닿았습니다. 꼭 필요한 순간에만 적당한 강도로 화를 표출할 수 있도록 마음속 분노를 스스로 잘 다스릴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진단검사의학팀 김다영 사원

'어느 간호사의 다이어리' 코너를 항상 잘 읽고 있습니다. 제가 간호사 선생님들이 일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건 아침에 병동 환자들의 채혈을 하는 시간뿐인데 그마저도 바빠서 주의깊게 보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이 코너를 통해 간호사 선생님들이 환자를 위해 얼마나 정성을 다하고 노력하는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병원 곳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간호사 선생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심장병원간호팀 박영란 사원

'문화·생활정보 - 국립박물관으로 나들이 떠나요' 속 내용이 아주 유익했어요. 전국 곳곳에 위치한 박물관들을 관람하고 그 지역 관광까지 같이 하면 더욱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기회에 가족들과 함께 '박물관 여행'을 다녀와야겠습니다. ^^

암병원간호팀 박윤정 사원

원주리에 대한 이야기가 담긴 '나무야 나무야' 코너를 잘 읽었습니다. 겨울엔 병원과 기숙사를 지하 통로로만 오갔는데 날씨가 좋은 요즘엔 병원 중앙공원을 가로질러 다니며 많은 꽃과 풀, 나무를 구경하곤 합니다. '나무야 나무야' 코너 덕분에 전혀 모르고 지나치던 꽃의 이름과 꽃말까지 알 수 있어서 좋아요. 출퇴근길 작은 행복이 생겼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리팀 김송이 주임

'AMC 리얼스토리 - 두렵지만 함께라면 해보겠습니다' 내용이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환자가 스스로 잘 이겨낼 것이라고 믿도록 곁에서 최선을 다한 의료진의 노력과 정성이 마음에 깊게 남습니다. 저는 비록 환자를 직접 만나지 않는 검사실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늘 환자의 행복을 위해 일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해야겠다고 새로이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 지난호 정답

제676호 병원보에 실린 콘텐츠 중 독자들이 꼽은 가장 좋았던 코너는 '마음건강노트 - 분노를 잘 다루기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이번 독자엽서는 병리팀 김태욱 사원이 추천했습니다. 당첨되신 분들은 3개월 이내에 홍보팀을 방문해 상품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선물 당첨자 명단은 마지막 페이지 오른쪽 하단에 있습니다.

